

보호자 안내

어르신의 작은 변화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기 위해

저희 기관은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는 데 **WellCare AI** 라는 시스템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검사를 하거나 어르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던 것을 그대로 재고, 그 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가족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기관명

담당자 · 연락처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

평소처럼 잹니다

기관에서 늘 재던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 산소포화도 · 혈당**을 그대로 잹니다. 어르신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

그분의 평소와 견줍니다

사람마다 평소 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평소**를 기준으로 삼아, 거기서 벗어나는지를 봅니다.

3

간호 인력에게 알립니다

평소와 다른 신호가 보이면 **오늘 먼저 살펴볼 어르신**으로 간호 인력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다음은 사람이 판단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습니까

봅니다

- ✓ 기관에서 이미 재고 있던 **활력징후 기록**
- ✓ 그 수치가 **어르신의 평소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 ✓ 앞으로 **보름 사이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
- ✓ 기록이 빠진 날이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 ✗ **영상과 음성** — 카메라도 녹음도 쓰지 않습니다
- ✗ **어르신의 위치** — 위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 ✗ **가족의 정보** — 가족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 **기관 밖에서의 생활**

어르신께 새로 채우는 기기는 없습니다

손목이나 몸에 무언가를 착용하시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그대로**이고, 달라지는 것은 **기록을 보는 방식**뿐입니다.

자주 주시는 질문

인공지능이 어르신을 진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찰이나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고 「오늘 이 어르신을 먼저 살펴보시라」고 간호 인력에게 알려 드리는 역할입니다. **판단과 처치는 기관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는 것보다 정확합니까?

정확하다기보다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여러 어르신을 동시에 살펴야 하고, 조금씩 오르내리는 수치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를 대신 챙겨 보는 역할입니다.

어르신이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느끼실 만한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검사도, 새로 착용하는 기기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기관에서 활력징후를 재는 것이 전부입니다.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어르신의 건강 기록은 **민감한 정보**이므로 아래와 같이 다룹니다.

- 저장할 때와 주고받을 때 **모두 암호화**합니다
- 정해진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나눕니다**
- 누가 언제 열어보았는지 **기록을 남겨 보관**합니다
- 연결하는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기**로만 한정합니다
- 광고나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관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기록을 어떻게 다룰지는 기관이 보호자에게 안내드리고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관으로

어르신에 관한 것은 기관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 빠릅니다.

시스템에 관한 문의

에스디씨웰케어 주식회사
042-933-1638 · sdc@seouldaycare.com